

대림, 2003년 에틸렌 수출 1위

SK는 SK네트웍스와 통관업무 정리 ... S-Oil은 Propylene 수출 1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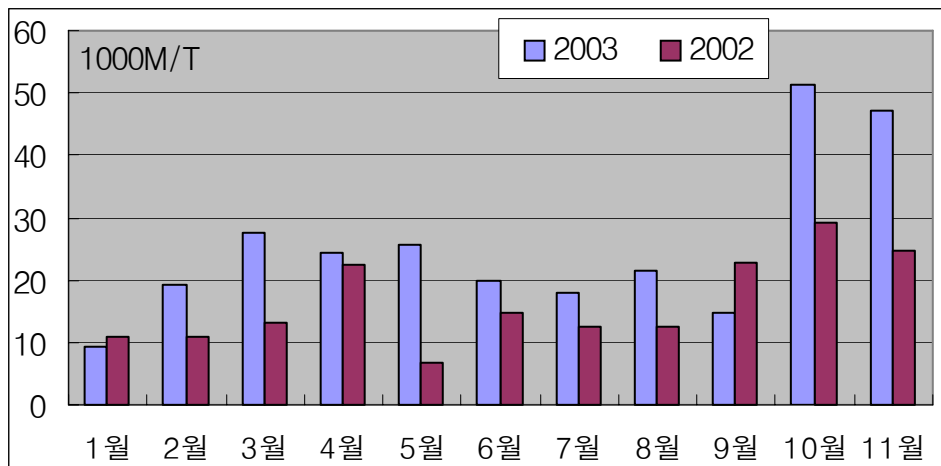
2003년 에틸렌(Ethylene) 수출실적에서 대림코퍼레이션이 수출 39건에 총 9만3574톤을 수출한 것으로 조사돼 에틸렌 수출량에서 1위를 차지했다.

에틸렌 수출 2위는 한화로 5만6811톤을 수출했고, 3위는 한국미쓰이물산(4만2727톤)이 차지했다. 에틸렌 수출 1-3위가 여천NCC로부터 공급받아 수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에틸렌 수출에서 한국미쓰이상사와 한국마루베니상사 등 일본계 상사들은 SK의 통관업무를 담당했던 SK네트웍스(옛 SK글로벌)로부터 2003년 3월 분식회계 사건 이후 통관업무를 이양 받아 수출량이 다소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프로필렌(Propylene)은 S-Oil이 7만3705톤을 수출해 1위를 차지했으며, 현대석유화학과 삼성물산이 그 뒤를 이었다.

Ethylene 수출실적(2003)



부타디엔(Butadiene)은 삼성물산 2만5268톤, LG상사 2만3221톤, 삼성Atofina 2만652톤을 기록했고, Benzene은 LG-Caltex정유가 18만7215톤으로, 톨루엔(Toluene)은 SK가 1위로 조사됐다.

대림코퍼레이션은 에틸렌을 1월 3511톤, 2월 7468톤, 3월 9762톤, 5월 12562톤, 6월 1220톤, 7월 5671톤, 8월 6992톤, 9월 3901톤, 10월 1만5373톤, 11월 1만911톤, 12월 5220톤 수출했다.

2004년 여천NCC가 한국마루베니와 에틸렌 공급계약 체결해 2004년 에틸렌 수출 순위는 다소 변경될 것으로 보인다.

에틸렌은 2003년 아시아에 154건, 중남미에 2건을 수출했으며, 수출량은 월평균 8989톤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10월 이후 에틸렌 수출증가는 10월3일 호남석유화학의 HDPE(High-Density Polyethylene) No.3 플랜트 사고 이후 에틸렌 잉여물량이 수출됐기 때문으로 조사됐다. <김동민 조사연구원>

<Chemical Journal 2004/01/30>